

#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 '요원'

### 환경부 군산시의원 5분 발언... "10년이 다 되어 가는 사업... 총사업비·소송 계속 늘어나는 중"

군산시의회 환경부 의원은 20일 제 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널 수 없는 다리 2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환경부 의원은 "작년 10월 24일 어찌 다 이런 일이 다섯 번째 이야기 '100억 사업 건널 수 없는 다리' 즉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중 보충도에서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의 제2교 공사가 1년 전 완공되고도 바람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며 "이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교 때문이 아니라 8개월 만에 다시 같은 사업에 제3교 477m의 명도~광대섬 구간 공사가 설계 당시 수십 파악을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군산시의회 환경부 의원은 어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널 수 없는 다리 2'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올해 4월 이번에는 설계사에 대해 수심을 잘 못 파악한 설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 결국 3개의 소송 즉 1개는 군산시가 피고인 물어 줘야 할 공사대금 95억 소송, 2개는 군산시가 원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 의원은 10년이 다 되어 가는 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은 요원하고 총사업비와 소송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며 군산시는 이번

2024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총 35억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바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해 총사업비가 340억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예산심 의 때 보조자료로 제출한 군산시의 추경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을 보면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년당 10억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의회를 협박하는 거냐고 성토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증액을 요청한 35억원의 세부내용으로 물가상승과 국내의 원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35억원의 38.8%인 13억5,700만원의 제3교의 설계 때와 달리 깊어진 수심 때문에 크레인을 100톤에서 250톤으로 변경하면 10억3000만원도 제3교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제3교 전기공사 7억은 기존 전기공사 증액이 아닌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전기공사가 필요해 새로운 전기공사비라며 과연 제1교, 제2교, 제4교 전기공사는 안전하게 한 것이 맞냐고 지적하며 납득할 만한 증액 사유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안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을 시 7월 4일 예정인 제26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기관 선정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포상금 100만원 수여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사회 건강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2024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성과대회'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장려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익산시는 지난해 성과발표대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 로얄홀에서 전국 9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과평가는 △사업 근거마련 △인력 배치 적절성 △지역사회 기반 △주민 참여 △지역자원 협력 △사업의 효과성 △지속 및 확산 가능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익산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참여자의 사전·사후 기초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24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기관 선정

#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혜택 광광"

### 배달앱 가맹업소 배달료 2천원·군산사랑상품권 가맹업소 5%할인

군산시는 고물가상황속에서도 주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현재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36개 업소로, 매년 상·하반기마다 신규 업소 지정 및 기 지정 업소 재지정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연 85만원 상당의 수요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도 운영중이다. 6월 초부터는 '착한가격업소 배달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배달앱에 가맹된 착한가격업소에서 서비스 이용 시 건당 배달료(방문포장 포함) 2천원을 즉시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비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민간 앱과 배달의 명수까지 폭넓게 배달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착한가격업소에서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카드로 결제하면 5% 추가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카드사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서 확인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 중국 '옌타이시' 부시장단, 군산시 방문

### 자매도시 체결 30주년 기념·해양수산업 분야 적극 교류 추진



군산시의 중국 자매도시인 옌타이(煙臺)시 부시장단이 20일부터 21일 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군산시를 방문했다.

옌타이시 부시장 일행(부시장 량웅)은 이번 만남을 통해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기념하고 양 시 해양수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감임준 군산시장과 만나 인사

를 나눈 뒤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1994년 자매도시 관계를 체결하여 올해로 30주년이 되는 양 도시 간의 교류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군산과 옌타이 모두 해양도시라는 공통점에 따른 해양수산업 분야에 대한 양 시의 현황 소개와 적극적인 교류 대책이 중점적으로 이야기됐다. 이후 군산시는 옌타이시

부시장 일행에게 시간여행마을을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군산의 근대역사 관련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량웅 부시장은 "군산에서 보여주는 신 환경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감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 양 도시 간에 실질적인 우호관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이번 방문이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옌타이시는 인구 706만명의 산동성 동부에 위치한다. 현재 군산시 중국 사무소가 주재하고 있어 대 중국교류 중심도시이며 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백일해 환자 발생 주의 당부

익산시 보건소는 백일해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백일해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 등으로 진행되는 급성 호흡기질환이다. 환자 또는 보균자의 비말 감염에 의해 전파되며 잠복기가 4~21일정도 접촉 시 3주 정도는 주의가 필요하다.

익산 지역은 19일 기준 29명의 환자

가 발생했으며 학교나 가정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시설 내 주기적인 환기가 중요하다.

보건소는 백일해 예방을 위해 적기 백신 접종(DTap, Tdap)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침 또는 감기가 오래 지속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 익산시, 취약 어르신 대상 폭염 대비 안전 대책 마련

익산시가 지난해보다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9월 말까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운영과 노인일자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403개 경로당을 상시 개방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효시에는 무더위쉼터 시간을 연장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전파해 폭염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 경로당에 월 16만 5000원을 지원하며 한시 냉방비를 1만원 인상해 월 17만 5000원씩 2개월 간 지원한다.

익산시는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대책도 실시한다. 야외 근무자들에게 모자, 냉감 티셔츠, 쿨토시 등 냉방용품을 배부하고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가급적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근로 시간을 조정해 운영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찾아가는 행복 학습센터' 27일 개강

군산시는 오는 6월 27일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동시에 개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강하는 행복학습센터는 엄격한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6개 지역 특화 교육 과정이 군산시 각 지역에서 동시에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산업단지인 오식도동은 다문화가족과 지역민들이 가정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전문과정'이 개설되었으며, 농촌지역인 개정면은 '가족공예 배우기'가 개설되었다.

원도심인 월명동은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 '업사이클링으로 가치창출' 교육이 마련되었다.

신영동에서는 '지역 공설시장 겨울 환경조성' 배움 과정을, 소룡동에서는 '미용기술 기초과정'이 주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